나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윤병태 시장 주재 긴급 점검회의…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호우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주말부터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취약지역 사전 관리와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집중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병태 나주시장 주재로 안전도시건설국장과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한 안전 분야 관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일까지 예보된 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빗물받이 점검, 농경지 배수펌프장 정상 가동 여부, 산사태 위험지역과 급경사지 예찰 강화, 지하차도와 침수 우려 주택 사전 통제 및 주민 대피,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통제, 읍면동 양수기 등 수방자재 전진 배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나주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35개소, 홍수취약지역 6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109개소, 급경사지 119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점검과 가동훈련을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서성택 기자

담양지역자활센터, 자활주민 어울림 한마당 열어

담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최윤규)는 최근 무정면 무정관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이정옥 담양복지재단 이사장, 자활센터 운영위원,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자 간 화합과 소통을 돕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무정농협이 100만 원, ㈜동양비지니스폼이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참여자들의 자립을 응원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하계 휴가철 물가 안정 캠페인 전개

화순군은 최근 하계 휴가철을 맞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일원에서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임지락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군의회 의장, 군의원,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 군청 직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휴가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바가지요금 근절 등 건전한 소비문화 실천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군민명예감사관 13명 위촉… 청렴행정 실현 앞장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광군, 2026년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이번 행사는 새롭게 위촉된 군민명예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감사관의 역할과 감사제도를 공유하는 한편 군정 발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읍·면별 추천을 통해 위촉된 13명의 군민명예감사관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활 현장의 불편사항과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보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군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명예감사관이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의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군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군민명예감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 참여 기반의 감사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 기자

장성군,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개원… 미식산업 새 출발

김한종 군수 "지역 농특산물·관광 연계한 '미식관광 거점' 기대"

장성군이 최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개원식을 열었다. 안유성·하종률 셰프, 조혜경 명장 등 내외빈 포함 200여 명이 참석해 장성의 미식도시 도약을 응원했다.

식전 행사로는 시범운영 영상 상영과 퓨전국악 공연, 장성오색국수 시식회가 마련됐다. 본식에선 경과보고와 기념사, 진흥원 개원을 축하하는 '논알콜샴페인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이후 진흥원 내부를 둘러보며 시설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미식산업진흥원(장성읍 문화로 110)은 바닥면적 1028㎡, 지상 2층 규모 건물에 조리교육장과 메뉴개발실, 베이커리교육장, 커피교육장, 쿠킹스튜디오 등을 갖춘 시설이다. 외식 전문교육과 메뉴 개발은 물론 미식 콘텐츠 제작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문 교육과 창업 지원,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며, 장성 미식산업 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장성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개원식 사진 /장성군 제공

군은 정식 개원에 앞서 지난 5~6월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시설 운영 및 교육 과정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한식·베이커리·바리스타 분야 1일 교육과정인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해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치유밥상 클래스'를 관광상품과 연계한 콘텐츠도 호응을 얻었다. 장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리 체험과 식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식 콘텐츠'도 선보였다. 장성군은 앞으로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